

닭의 기운으로 희망찬 새 시대 열어라

신년기획 풍성한 닭 세화전

광주시립미술관 18일~2월 19일 '꼬끼오~'

강연균·황영성 등 작가 40여명 50여점 작품

조선대미술관 19일~2월 3일 '정유년~'

금속·섬유·도자·목공예 등 다양한 장르 작품

광주신세계갤러리 19일~2월 20일 '어둠속~'

고글 쓴 병아리·닭 풍향계...답답한 현실 탈출

한국미용박물관 2월 25일까지 '봉황일예'

머리카락 깃털·투박한 원색...팝아트 느낌 물씬

최근 박근혜 대통령 별명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지만 닭은 개·소와 더불어 우리 민족과 친숙한 동물이다. 우리 조상들은 여명을 알리는 닭을 상서롭고 신동력을 지닌 동물로 여겼다. 그 어느때보다도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마음이 높다. 힘찬 울음소리로 희망을 전하는 닭을 만날 수 있는 정유년 세화전(歲畵展)을 소개한다.



서유경 작 '소녀와 꼬꼬'

◇광주시립미술관=광주시립미술관이 본관 1층 아트라운지에서 18일부터 2월19일까지 여는 신년기획전 '꼬끼오~'에는 작가 40여명이 참여했다.

강연균·황영성 전임 관장을 비롯해 조진호 관장, 현재 미술관에서 중견작가초대전 등을 갖고 있는 이준석 작가, '광주극장 간판쟁이' 박태규 작가, 하진 전남대 교수 등이다. 각 작가들은 회화, 사진, 서예 등 작품 50점을 선보인다.

강연균 전 관장은 단란한 닭 가족이 등장하는 작품을 출품했다. 초록 들녘에 가족을 지켜려는 듯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아빠 닭, 병아리를 돌보는 엄마 닭이 정겨운 모습이다.

황영성 전 관장이 그린 닭은 해학적인 분위기가 엿보인다. 나비넥타이처럼 표현한 닭벼슬, 입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얼굴, 풍성한 붉은 깃이 눈에 띈다.

또 기개가 느껴지는 조진호 관장의 '무등의 새 아침'은 닭 날개를 알록달록 채색하며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밖에 광주일보 신년호(1월2일자 19면)에 게재된 강남구 작가의 '위풍당당' 원본도 볼 수 있다. 문의 062-613-7143.

◇조선대미술관=조선대미술관은 19일부터 2월3일까지 '정유년 세화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사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작가 58명이 참여해 시·서·화 등 평면뿐 아니라 금속·섬유·도자·목공예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한 개성어린 작품을 보여



송영학 작 '포기할 수 없는 꿈'

박구환, 배수민, 손봉채, 송영학, 임현재, 하루 등 작가 14명이 전시주제에 맞춰 제작한 신작 20여점을 출품한다.

작가들은 닭 이미지에 자기 자신을 투영하기도 하고, 작품을 통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박구환 작가는 트럼프카드를 패러디한 '즐거움 외출III'을 제작했다. 종이를 잘라 붙여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닭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송영학 작가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을 통해 어릴적 꿈꿨던 영웅 모습을 작품에 담았다. 필릭이는 붉은 망토를 걸친 큰 닭과 고글을 쓴 병아리가 등장한다.

임현재 작가는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작품 'Wake-up'에는 원공이 철창에 갇혀 있는 가운데 희망의 바람이 불어줄길 기원하는 닭 풍향계를 그려 넣었다. 문의 062-360-1271.

◇한국미용박물관=한국미용박물관(광주 북구 용봉로 116)에서도 닭을 만날 수 있다. 닭을 전설 속 동물 봉황과 똑같이 보고 2월25일까지 '봉황일예'(鳳凰一藝)전을 연다.

강선호·기영숙·김설아·김익모·서현호·신선운·주홍·한희원 등 청년작가부터 중견작가까지 작가 28명이 출품했다.

서현호 작가는 작품에 익살스런 이름을 붙였다. '그 닭'이다. 어린애가 그린 듯 크레파스를 사용해 투박하게 묘사했다.

김진숙 작가는 독특한 재료를 썼다. 머리 카락으로 깃털을 표현한 '붉은 닭' 작품을 작업했다. 일반 볼펜보다 질고 풍성한 느낌이 강하다.

그밖에 두터운 색칠로 질감을 부여한 한수연 작가의 '시간의 간극을 기록하다', 팝아트 느낌으로 굵은 외곽선과 원색 깃털을 표현한 기영숙 작가의 'Happy New Year'을 전시한다. 문의 062-514-662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강연균 작



황영성 작



정정임 작 'A Love Garden'

유·스퀘어문화관 '아름다운 예술시장' 21일 을 첫 행사

유·스퀘어문화관이 주최하는 '아름다운 예술시장'(사진)을 첫 행사가 오는 21일 2층 야외광장 '유테라스'에서 펼쳐진다.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알리고,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플리마켓이다.

지금까지 매회 지역작가 30팀이 참여해 직접 만든 비누, 옷, 팔찌와 예술품 판매 뿐 아니라 'One Day 작업 공방'을 열어 재능을 나누고 있다. 예술시장은 참가 수수료는 없으며 대신 지역 예술계 발전을 위해 수익 일부를 광주문화재단에 기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작가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메일(sekmax27@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는 매달 1~10일 받고 있다.

한편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열리며 다음달 행사는 2월18일에 열린다. 문의 062-360-84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광부 '문화가 있는 날' 을 사업 광주 설명회 24일 문화전당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의 2017년 사업 설명회를 전국 5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오는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라권 설명회를 갖는 등 18일부터 서울, 춘천, 대전, 부산에서 연다.

문광부는 올해 지역 문화재단과 문화예술단체, 문화기획자 등 지역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 '1930 양림살롱' 등 지난해 처음 추진한 지역 거점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에는 전년 대비해 20억원이 증가한 총

50억 원을 투입해 40여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문화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청춘마이크' 사업(예산 28억원)은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사업 주관처를 권역별로 운영한다.

오페라, 가극, 낭독극 등 소외된 예술 분야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이야기가 흐르는 예술여행'(예산 6억원)을 추진하고 사업자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백광식·양계남·김재일·하철경·김병모·정철·김효삼·박은수·고희자·신은학·한갑수·장규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12인 초대전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기간: 2016. 12. 23(금) ~ 2017. 1. 23(월)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

세계조각·장식박물관 ☎(062)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